



베트남 탕빈 돼지도매시장

—홍보부—



베트남은 이제 막 일어서는 나라이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복받은 나라이고 '80년대 중반에 등장한 도이묘이 정책은 베트남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끌어내면서 경제도약을 가능케하고 있다.

위사진은 베트남 최대의 돼지고기 도매시장인 탕빈시장이다. 탕빈 돼지고기 도매시장은 새벽 4시에 문을 열고 하루 1,500 마리 정도가 도매된다. 베트남의 돼지고기는 유난히 맛이 좋아 소고기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된다.